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 光日春秋



양 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남북이 오랜만에 마주 앉았다. 만남의 기다림이 길었던 만큼 이야기도 길었다. 2+2라는 이례적인 첫 만남에서 예상치 못한 소득이 있었다. 시작은 북한의 묵한 지리 도발과 서부전선에서의 포격이었다. 군사적 충돌 상황이 남북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했지만, 대화를 통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나아가 남북관계 개선을 마련하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남북회담사의 유례없는 마라톤 협상에 대미를 장식한 셈이다.

우선 군사 문제에 대해서 남북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한 발짝씩 양보했기에 합의가 가능했다. 남북은 지리 도발에 대한 북측의 직접적인 사과 대신 유감 표명을

##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수용하였다. 북측은 남측의 확성기 중단에 '비정상적 사태가 신생되지 않는 한'이란 단서조항을 수용함으로써 확성기 방송이 재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는 천안함 사건을 비롯해 과거 발생한 미결 사건들을 해결하는데 답안지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이번 합의가 가지는 보다 큰 의미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특히 당국 간 회담 개최를 제함에 명시한 것은 의미가 크다. 남북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공감하고 향후 분야별 다양한 형태의 대화를 통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민간교류 활성화는 5·24 조치 해제와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숨겨진 한 수이다. 결국 의미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민간교류 활성화는 충분히 가능하고, 무의미해진 5·24 조치는 자연스럽게 접진적·단계적 해제의 수순을 밟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번 회담 결과가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지리사건의 주체를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과 포격 도발에 관해 언급조차 없었다

는 점이 그것이다. 지리사건에 대한 북한의 유감표명은 간접적인 시인·사과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남측 군인들의 부상'에 대한 인도주의적 차원 또는 같은 민족이라는 차원'으로 해석할 것이다. 향후 논쟁의 여지는 있다. 그러나 남북한의 합의서는 과학적 법칙이 아니라 정치적 해석을 해야 한다.

통일부와 통일전선부는 남북관계 전문가 집단이다. 조직적 경험도 풍부하다. 청와대와 조선노동당은 정치적인 집단이다. 합의서까지는 최고지도자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지만 이전 전문가 집단의 치밀한 이행이 필요하다. 합의문에 남북통-통라인(통일부-통일전선부)을 재개하는 고위급 대화채널을 구체화하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 합의문에 이산가족 상봉과 민간교류 활성화가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를 명시하지 않은 점도 아쉽다. 이 문제는 이산가족 상봉 성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연결되기를 기대해 본다.

향후 진행 과정에서 우려되는 점은 '비정상적인 사태'라는 표현의 모호함으로 인해 재발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오는

10월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체로 주장하는 장거리로켓을 발사할 경우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 특히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북한의 군사 활동이 지속되는 한 예기치 못한 우발 상황과 오인으로 인한 확산 가능성이 상존한다. 최근 상대의 군사적 행동에 대해 완충 역할을 하는 조치들이 제거된 상황에서 합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남북관계 개선으로 확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한 군사적인 신뢰 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합의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협상이 길었던 만큼 합의를 지켜가야 할 앞으로의 과정은 어찌 면 상상 이상으로 길고 험난한 여정일지도 모른다. 잠깐 숨고르기도 할 여유도 없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쌓여가고 있다. 거대처럼 그렇게 무지갯빛 미래는 아니다. 비록 내부 정치적이지만 북한은 합의 이후 약간의 태도 변화를 보이며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럴수록 냉정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 정말 이번 합의 도출이 가능했던 것이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자세와 원칙 고수 때문이라면 말이다.

## 의료칼럼



김 황균  
밝은광주안과 원장

진료를 하다 보면 흔히 듣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침침'이라는 단어다. "TV자막이 겹쳐보여요", "휴대폰 문자가 안보여요", "사물이 뿌옇고 희미하게 보여요" 10대부터 8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 증상을 표현한다. 실제로 침침함을 일으키는 안과적 질환은 셀 수 없이 다양하며, 그중에 대표적인 원인과 해결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다.

먼저 굴절이상, 즉 흔히 말하는 근시, 난시, 원시는 시력이 떨어지는 대표적인 원인중의 하나이다. 이 경우에는 눈에 맞는 적절한 안경만으로도 시력의 질을 높일 수 있어 침침함을 해결할 수 있다.

아이들의 경우 시력저하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최근 내원한 3

## 침침한 눈 이야기

세 어린이의 경우 심한 원시가 있어 일정 거리에서의 TV시청이 불편해 자주 눈을 찡그렸고, 이를 지켜보던 부모는 단지 잘 못된 습관으로 생각해 꾸지람을 하거나 했다. 하지만 계속된 꾸지람에도 고쳐지지 않자 안과를 찾았고, 심한 원시가 이유인 것을 알게 됐다. 아이에게 맞는 안경처방으로 굴절 이상을 치료하게 됐다.

백내장은 흔히 접하는 질환이며,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진행하지만 30~40대 젊은 연령에서도 종종 발견된다. 기존에 눈에 불편감이 없다가 어느 순간부터 안개가 끼어있는 듯 뿌옇게 보이거나 시력이 저하되고, 안경으로도 잘 교정이 되지 않는다면 의심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백내장 수술은 기술의 발달과 효과적인 약들로 인해 수술 후 빠른 시력회복과 좋은 경과를 보인다. 백내장 수술시에 는 단순히 백내장만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안과수정체를 삽입하게 되는데, 난시를 교정하는 특수 렌즈부터 근거리 원거리를 모두 잘 볼 수 있게 하는 다초점렌즈까지 다양한 렌즈 삽입술이 시행되고 있어 침침함을 해결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중·장년층이 침침하다고 외래를 방문하는 흔한 원인질환의 하나는

노안으로 알려진 조절력의 문제이다. 나이가 들면서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인다면 노안을 의심해야 한다. 쓰던 안경을 벗거나 돋보기를 착용해야 잘 보이게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눈의 굴절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돋보기, 안경을 착용하는 것부터 굴절교정수술, 다초점인공수정체를 이용한 백내장 수술, 각막에 특수한 삽입물을 넣어주는 노안교정술 등 수술적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

녹내장으로 침침함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비교적 시력이 좋다 하더라도 무언가 끼어있는 듯하거나 뿌옇게 보이는 증상이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안압이 높아질 때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는 경우가 드물어 40세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하는 것이 좋다.

안구건조증은 시력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 원인이다. 이물감이나 뻣뻣함 이외에도 흐려 보이는 등 시력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심한 건조증에 의해 눈에 상처가 나거나 각막염이 심해지면 증상은 더욱 심해진다.

안구건조증은 눈물 양이 적게 분비돼 생기는 증상이다. 눈물이 나와 각막을 적셔줘 눈을 맑게 해주고, 눈의 코팅제 역할

을 하고 있으나 그 양이 적으면 눈이 건조해져 가칠해지고 상처가 생기는 것이다. 눈물 양이 적어져 생긴 증상하므로 눈에 맞는 적절한 인공눈물을 처방 받아 넣어주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하는 우리 눈의 망막은 병이 생기면 시력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 당뇨병이 있는 경우 망막에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눈 안의 혈관이 막히거나 막이 끼어 망막이 붓는 경우에도 시력저하와 침침함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실명의 원인중의 하나인 황반변성은 황반에 신생혈관이 생기는 등 병성이 일어나는 질환이며, 사물이 휘어 보이거나 왜곡돼 보이는 증상이 동반되거나 출혈이 생기면 급격히 시력이 저하되기도 한다.

이 밖에도 눈이 침침하게 되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지만 여기서 다 이야기 할 수 없는 것이 아쉽다. 그 중 특히 치료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증상이 없더라도 평소와 달리 눈이 침침해지면 안과 검진을 해보는 것이 좋다.

'몸이 천 냥이면 눈은 구백 냥'이라 했다. 사소한 증상이어도 간과하지 않도록 하고 시력저하가 있다면 지체 없이 전문의를 찾아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한다.

## 기 고



이 유진  
광주문화재단 정책연구팀 차장

영국의 예술가 윌리엄 워겐의 조각 작품들은 단 몇 미크론 정도의 크기 밖에 되지 않아 대부분 육안으로 볼 수 없다. 그의 작품 중 '금빛 요트'는 스위스의 명품시계 제조사에 의해 손목시계와 결합되었고, 시계 옆에 부착 된 광학기계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명품은 그 자체로 예술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생각하게 한다.

최근 광주시와 한국전력이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주 진입로인 금남로 인도변 배전반을 공동 정비해 광주의 도시 품격에 걸맞는, 견고하고 예술미가 넘치는 '명품길'을 만들어 내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배전반을 완전 철거하거나,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도록 리모델링하고 디자인을 개선하는 등 도시미관과 보행에 불

## '명품길' 금남로를 건다

편이 없도록 자연친화적 시설물을 탈바꿈시킨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자체 점검을 통해 안전배전반 뿐만 아니라 보도턱, 불라드, 파손되거나 침하한 보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중장기 대책도 마련 중이라고 한다.

오전 대부분의 출퇴근을 걸어서, 금남로를 가로 질러 하는 나는 규칙적으로 한 가지 코스만을 걷지 않고 그때그때의 마음에 따라, 날씨에 따라, 서둘러야 할 때나 아닐 때에 따라 다양한 코스를 택해 걷는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머무는 구심점들.

늦은밤, 갑자기 친구의 전화를 받고 달려가 함께 금남로 가로수를 감쌀 꽃잎 모양 손뜨개를 한뼘 한뼘 만들었다. 이 후에 일명 '진실의 옷'으로 불리는 손뜨개 옷을 입은 금남로 가로수같이 궁금해 금남로를 걸었다. 금남로 YMCA앞에서부터 지하도를 건너 전일빌딩 앞, 금남로 옛 카톨릭 센터에 문을 연 5·18민중화운동기록관 앞 나무들이 손뜨개 옷을 입은 채 서있다.

2015년 1월 27일, 옛 도청 앞 5·18민중화광장에 5·18시계탑이 30여년 만에 다시 세워졌다. 며칠전 이 시계탑 앞을 지나려던 참이었다. "이 시계탑의 시계가 있지? 이걸도 크기에 맞는 시계가 없어서 일본까지 건너가 시계를 사왔지." 재단에서

출간하는 광주학총서 '무등산, 광주 일백년'의 저자인 박선홍 선생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현재의 시계탑 앞을 지나 걸을 때였다. 박선홍 선생은 '아무리 바빠도 여기는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지난 1971년 청년회의소 전국회원대회 광주 개최를 기념해 세워진 시계탑의 뒷 이야기를 아직도 그날의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던 듯 생생하게 들려 주었다.

조각품들이 장소성을 살리지 못한채 지나치게 작가중심으로 구성 되어 그동안 비판을 받아온, 그래서 이번 명품길 조성을 위해 일부를 예술의 거리로 옮긴다는 금남로에 세워진 조각품들은 어느날 예술 뜰에, 또 어느날엔 포근하게 느껴진다. 이렇듯 내 나름대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발걸음을 끌여 당기는 금남로에서의 시간들을 떠올리며 걷는다.

금남로 '명품길'의 디자인 접근법은 그 이전까지 지배적으로 사용된 대규모 도시 디자인의 결정주의적 접근법과는 차별화 되어야 한다. 저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기분에 이끌려 한 번 더 찾아가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디자인. 그러려면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적용해 여러 유형의 대상자를 위한 디자인이 필요하다.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20세기 고도의 산업화 과정에서 대량생산을 통한 경제적 도약을 갈망했던 사회상에 기인한다. 생산된 물품과 건설 환경의 대상은 인간이었으나 대량생산의 효율성을 위해 표준화된 대상만이 선정되었고, 여기에 속하지 않는 대상들은 인위적 환경에서 차별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비판과 반성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유니버설디자인이다. 따라서 유니버설디자인이란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킴으로써 인간을 평등하게 포용하는 환경을 창조하는 것이다. 나이, 성별, 장애여부, 신체크기, 신체능력 뿐 아니라 경제적 계층, 인종 등이 모든 범위를 포함함으로써 디자인을 통한 사회평등의 실현을 의미한다. 덧붙이자면 무장애 디자인(Barrier Free Design)에서 출발한 유니버설디자인은 현재 장애인, 노인을 위한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넘어 다양한 능력과 인간의 전체 생애주기를 수용하는 디자인 개념으로까지 발전했다.

'진정한 여행자는 구경거리를 찾아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기분을 찾아 여행 한다'지 않는가. 광주의 상징 금남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심미적 가치에 집중이 필요하다. 나체의 '무서운 깊이 없이는 아름다움' 표현돼 있다는 말이 절실하게 마음에 와 닿는다.

## 社 說

### 주택조합 앞세워 편법 아파트 건설이러니

최근 광주 지역에서 아파트 건설의 상당수가 주택조합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의 시각이 많다. 주민들이 순수하게 주택조합을 결성해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거야 상관없지만 일부 시행사나 개발업체들이 주택조합을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방패막이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요즘 들어 일부 시행사나 개발업체들이 주택조합 결성을 지원하고 이 조합을 통해 사업 인허가 여론을 조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광주 상록회관 부지를 매입한 어느 부동산개발업체다. 이 업체는 아파트 건립을 위해 528억 원을 들여 상록회관 부지(4만8952㎡)를 매입했으나 부지 내 왕벚나무 군락지와 상록공원 등 녹지공간을 보호해야 한다는 반대 여론이 일면서 사업 인허가에 제동이 걸려서 주택조합 결성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는 것 같다.

업체 측은 부지 매입 1년 만에 전체의 75%를, 사들인 가격보다 많은 600억 원에 주택조합 측에 매각하기로 하고 조합원 모집에 나서고 있다. '사전

접수 중'이라거나 '선착순 등·호수 지정'이란 문자로 모집한 결과 1인당 1000만 원의 신청금을 입금한 주민이 60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매매차익을 차지하더라도 문제는 매각하려는 부지에 녹지공간이 포함돼 있다는 데 있다. 광주시로부터 사업 인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자 조합원들을 이용해 광주시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이이다. 더구나 광주시와 기부채납 문제가 해결되면 주택조합 설립은 없던 일로 할 계획이라니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는 것은 금방 알 수 있다.

광주에는 백운광장과 어등산 등 곳곳에서 이런 방식으로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편법이어서 일이 잘못 될 경우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주택조합에 참여한 주민들도 만에 하나 조합원취임장이 잠적할 경우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을 가능성이 있다. 차체에 광주시와 일선 구청은 주택조합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함께 불상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생계형 자영업 몰락 방지 방안 강구해야

경기침체와 과당 경쟁으로 대부분의 자영업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데도 광주·전남 자영업자는 되레 늘어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호남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재 광주·전남 자영업자는 45만 4000여 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무려 1만 1000여 명이 증가했다.

이처럼 폐업 속에서도 신규 창업이 늘어난 것은 지역 내 일자리 부족으로 젊은 층은 물론 노후가 불안한 베이비부머 세대 중심의 자영업 창업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가운데 81.3%가 고용원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들이란 것이다. 이는 자영업 운영구조가 생계형 창업으로 날로 취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생계형 창업은 진입 장벽이 낮은 대신 준비기간이 짧아 실패할 위험도 높다. 광주·전남 자영업계는 한 집 건너

'치킨집' '커피집' '속박업소'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리다 보니 같은 업종 간 무한경쟁은 물론 대형점포에 밀려 창업 후 생존기간도 매우 짧다. 자영업 증가에 이어 폐업도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사업 자금이나 생계비 마련을 위한 자영업자들의 대출금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대출금이 늘어날수록 지역 경제발전에는 마이너스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폐업을 한 뒤 재취업을 못해 다시 창업을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재취업 프로그램을 현실적으로 개선하고 일자리 나누기 등 고용 대책과도 연계해야 한다. 또 현행 밀착형 창업 지도 등 자영업 안정화 대책을 통해 저소득 빈민층 확대라는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 無 等 鼓

"다섯 그루의 노송과 스물여덟 그루의 자미(紫微)나무가 나의 화엄 연못, 지상에 불되고 있네..." (황지우 '물빠진 연못' 중에서)

매년 8월말께 찾아가는 곳이 있다. 담양군 고서면 산덕리 후산마을에 있는 '명옥헌 원림'(명승 제58호)이다. 이 담양면 뒤편에서도 붉게 피어난 배롱나무 꽃이 자연스레 발길을 이끈다. 명옥헌은 조선 인조 때 장계 오이정(1619~1655) 선생이 어릴 적 돌아가신 선친(오희도)을 기리

는 특성에서 유래된 것이다. 경북대 박상진 명예교수는 이에 대해 "처음에는 '백일홍 나무'로 불리다가 '배기롱 나무'를 거쳐 '배롱나무'로 변화한 것 같다"고 풀이한다. 배롱나무는 꽃잎이 붉고 강렬해 일반 가정집보다 산사 앞마당이나 사당, 정자 주위에 심어졌다. 생태사학자 강만권은 '선비가 사랑한 나무'에서 배롱나무의 붉은 꽃은 일편단심(一片丹心)을 의미하고, 반질반질한 나무 표면은 길과 속

이 같은 표리일치(表裏一致)를 상징한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선비들이 지향하는 충(忠)의 의미가 깃들여 있다는 것이다. 명옥헌 배롱나무 꽃이 가히 절정이 다. 흐릿한 정자마루에 앉아 책을 펴두고 싶지만 워낙 찾는 사람이 많다보니 호사를 누리기가 쉽지 않다. 그래도 시원한 산들바람과 함께 귀를 간질이는 매미소리는 일상의 스트레스와 번잡한 잡념을 맑고히 날려버린다. 바라건대 명옥헌을 잘 보존했으면 싶다. 선부른 개발 명목으로 지나치게 '화장'을 입히는 것보다 지금 모습으로 우리 곁에 남아 있도록 했으면 한다.

이 같은 표리일치(表裏一致)를 상징한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선비들이 지향하는 충(忠)의 의미가 깃들여 있다는 것이다. 명옥헌 배롱나무 꽃이 가히 절정이 다. 흐릿한 정자마루에 앉아 책을 펴두고 싶지만 워낙 찾는 사람이 많다보니 호사를 누리기가 쉽지 않다. 그래도 시원한 산들바람과 함께 귀를 간질이는 매미소리는 일상의 스트레스와 번잡한 잡념을 맑고히 날려버린다. 바라건대 명옥헌을 잘 보존했으면 싶다. 선부른 개발 명목으로 지나치게 '화장'을 입히는 것보다 지금 모습으로 우리 곁에 남아 있도록 했으면 한다.

이 같은 표리일치(表裏一致)를 상징한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선비들이 지향하는 충(忠)의 의미가 깃들여 있다는 것이다. 명옥헌 배롱나무 꽃이 가히 절정이 다. 흐릿한 정자마루에 앉아 책을 펴두고 싶지만 워낙 찾는 사람이 많다보니 호사를 누리기가 쉽지 않다. 그래도 시원한 산들바람과 함께 귀를 간질이는 매미소리는 일상의 스트레스와 번잡한 잡념을 맑고히 날려버린다. 바라건대 명옥헌을 잘 보존했으면 싶다. 선부른 개발 명목으로 지나치게 '화장'을 입히는 것보다 지금 모습으로 우리 곁에 남아 있도록 했으면 한다.

<b>光 州 日 報</b>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程厚植</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61482)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b>광고문의 062-227-9600</b>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63 (대표 FAX 222-4267)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대체부 2200-696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프 로젝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b>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b>			

##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